

전남 어업 생산량 전국 절반 넘어

사상 최초... 지난해 52% 차지 144만t 기록 주요 양식품종 톱·미역 등 해조류 증가 한몫

전남지역 어업 생산량이 크게 늘어나 사상 처음으로 전국 생산량의 절반을 넘어섰다.

23일 전남도에 따르면 통계청의 2016년 어업생산동향조사 내용을 분석한 결과 2016년 전남 어업 생산량이 144만t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129만t)보다 11.6% (15만t) 늘어난 것으로 전국(280만t)의 52%를 차지하는 규모다.

전남의 어업 생산량 비중은 2014년 11.8만2000t으로 전국(265만6000t)의 4.5%, 2015년 129만4000t으로 전국(275만3000t)

의 47%로 계속 높아지다 지난해 절반을 넘어선 것이다.

이처럼 전남지역 어업 생산량이 늘어난 것은 주요 양식 품종인 해조류의 경우 시설 면적이 늘어나고 양식 해황환경이 적정 수준을 유지하면서 지역이 47만9000t으로 전년보다 18만t이 늘고, 톱이 3만2000t으로 5000t이 늘어난데 따른 것이다. 전복 생산량도 시설량 확대 등으로 74% (5000t) 늘어난 1만2000t을 기록했다.

내수면어업 역시 주요 품종인 뱀장어 생산량이 5818t으로 전년보다 10% (500t) 늘

었다. 반면 어선어업은 해양어선 약화 및 자원량 감소로 어획량 비중이 큰 참조기가 1만1000t으로 9000t이, 별치가 3만1000t으로 2000t이 각각 줄었다.

주요 품종별 생산량 상위 순위는 미역 47만5000t, 다시마 40만2000t, 김 31만1000t, 톱 3만2000t, 별치 3만1000t, 굴류 2만4000t, 넙치류 1만4000t, 전복류 1만2000t, 갯새우류 1만2000t, 홍합류 1만1000t 순이다.

전남지역 어업 생산량 증가에 따라 생산액도 2조1809억원으로 전년보다 12.6% (2437억원)가 증가했다.

어업별 생산액은 어선어업 7691억원, 양식어업 1조2404억원, 내수면어업 1714억원이다. 전국 어업 생산액은 6조4529억원이다.

주요 품종별 생산액은 전복류 3415억원, 김 3414억원, 넙치류 1790억원, 뱀장어 1571억원, 넙치류 1118억원, 갯새우류 894억원, 참조기 890억원, 미역류 768억원, 조피볼락 675억원, 다시마류 665억원 순이다.

양근서 전남도 해양수산국장은 "노후 양식시설 현대화 및 자동화로 경영비율 절감하고 전복 참치식 가두리 시범양식, 친환경 바이오블락양식 등 친환경 양식기술을 확대 보급하는 등 수산업을 저비용 고소득 구조로 전환해나갈 계획이다"며 "또한 연세 생산에 1조2400억원 대인 양식어업을 고부가가치 양식산업으로 육성해 2020년까지 2조 원 산업으로 확대하는 등 전남을 세계적인 수산물 공급 기지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시 직원들이 25일 제2호 광주신료소사 개소하는 내달 마르밧의 다무의 마을 주민들을 위해 의복을 등 물품을 모으고 있다.

“따뜻한 광주의 ‘정’ 나누고 싶어요”

광주시청 직원들 내달 주민 지원 물품 모아

“의술 대신 따뜻한 정(情)으로 내발 인들과 함께 하고 싶어요.”

광주시 직원들이 25일 제2호 광주신료소가 개소하는 내달 마르밧의 다무의 마을 주민들을 위해 십시일반 마음을 모았다.

어린이를 위한 크레파스, 노트 등 학용품과 축구공, 율담기 등 운동용품, 의류, 가방 등 현지인들에게 필요한 물건들을 모아 전달하기로 한 것이다.

시 내부 행정포털 게시판에 공지문을 올린 지 5일 만에 직원들의 기금 물품이

23kg 규모의 여행가방 8개를 넘을 정도로 쌓였다.

또 광주하계유니버시티도 조직원들이 2015년 대학을 다니고 남은 자원봉사 티셔츠와 바지, 가방 등 50여점을 기증했으며, 광주시체육회에서도 배드민턴과 공 등 40여점을 내놓았다.

기증 물품은 진료소 개소 후 광주시청과 시의회 의정 등 병문안이 다무의 마을 주민들에게 직접 전달할 예정이다.

정몽경 기자 vta@gwangnam.co.kr

전국 사방사업 전문가 한자리 영양사 정책 방향 워크숍 개최

전남도는 23~24일 이틀 간 영암 호텔현대에서 ‘전국 사방 전문가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산림청이 주최하고 전남도가 주관해 사방 담당 공무원과 산림청 관련 전문가 등 200명이 사방사업 정책 방향의 이해와 친환경적 사방 방법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첫날인 23일에는 사방사업의 설계·시공과 효율적 유지관리 방안 등에 대한 전문가 주제 발표와 산사태 재해를 낮출 수 있는 물질 현장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24일에는 사방사업의 대표적 성공 사례지인 월출산 기전랜드를 찾아 산림유역관리 사업 시공 사례를 살펴보고, 현장보존회가 진행된다.

백정환 기자 hohu@gwangnam.co.kr



서구, 희망플러스 가중나드리 체험 광주시 서구(구청 임우진)는 23일 희망플러스 소년원생 프로젝트 사업으로 희망여행단선사 18기 정(80여명)들을 대상으로 1박2일 용인 에버랜드 행복나드리체험을 실시했다.

전남글로벌게임센터 27일 개소

제갈현 콘텐츠와 실감미디어 기술 등 미래 산업과 연계한 ‘전남글로벌게임센터’가 오는 27일 개소식을 갖고 공식 출범한다.

이번에 문을 여는 ‘전남글로벌게임센터’는 지역 내 제갈현 콘텐츠 게임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와 전남도의 지원으로 현재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원장 김은영)이 운영, 기업 입주와 창업보육 공간 12실을 비롯해 게임 콘텐츠의 성능과 효과를 시험할 수 있는 전문장비가 갖춰진 테스트베드센터와 체험존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개소식은 센터가 위치한 나주 혁신도시 내 전남실감미디어산업지원센터에서 오후 1시부터 진행된다.

백정환 기자 hohu@gwangnam.co.kr

전남도, ‘미래 이동수단’산업 선점한다

산업부 공모 ‘미래 이동수단 사용자 경험형 증진 구축’ 선정

전남도는 올해 산업부사용자 기반산업육성 기반 구축 공모사업에 ‘미래 이동수단 사용자 경험형 증진 기반 구축 사업’이 선정됐다고 23일 밝혔다.

‘미래 이동수단 사용자 경험형 증진 기반 구축’ 사업은 영광 대마산단에 구축 중인 마이크로 모빌리티(초소형 전기자동차) 기반 구축 사업과 연계한 사업이다.

총 사업비 162억원(국비 100억·지방비 62억) 규모로 자동차부품연구원, 생산기술연구원, 서울대학교 등과 공동 추진한다. 미래 이동수단은 마이크로 모빌리티(3·4륜 소형 전기차), 세그웨이, 원/무동륜 등이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은 ‘친환경 전기자동차의 미래형 개인용 이동수단’에 대한 사용자 경험 및 디자인 향상을 위한 R&D, 중소·중견기업 개발 제품의 적합성 인증을 수행하는 실내·외 평가 기반 및 부가가치 정보 창출을 위한 ICT 인프라와 기반 데이터 플랫폼 등의 복합체로 의미한다.

전남도는 영광 대마산단에 추진 중인 마이크로 모빌리티 개발 및 시험평가 인프라 구축사업과 연계·융합할 경우 시너지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 미래 이동수단 차량의 기계적 성능 및 신뢰성 확보와, 이용하기 편리하고 안전한 사용자 중심의 디자인 및 개발에 초점을 두는 상호 보완적 기능을 수행, 자동차 및 전기자동차 산업의 특색성인 ‘미래 이동수단’ 산업을 선점해나간다는 목표다.

전남도는 이 사업이 기존 완성차 중심의 수직 계열화된 대량 생산 방식에서 벗어나 다수의 중소·중견기업 참여가 가능하고, 궁극적으로는 연구개발 및 인증평가 기반 등 지속가능한 신산업 생태계가 구축돼 국가 발전에 물론 전남의 미래 성장동력산업 육성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백정환 기자 hohu@gwangnam.co.kr

광주 지하철 교통카드 인기... 이용률 91%

도시철도공사 이용현황 분석

광주도시철도를 이용하는 승객 10명 중 9명 이상은 교통카드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광주도시철도공사에 따르면 2017년 승객 이용현황 분석 결과, 교통카드 이용률이 91.19%를 돌파,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일반, 청소년, 어린이 등 전 연령대에서 고령 증가세를 보여 시민들의 교통카드 이용이 보편화된 것으로 분석했다. 반면 1회권 이용률은 전년보다 4.21%p 감소한

8.8%로 떨어졌다.

공사는 교통카드를 이용하면 시내버스 등 타 교통수단간 환승 시 무료·할인 혜택을 받는다는 점이 이용률 증가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또 1회권에 비해 할인혜택이 있어 저렴하고 연말잔산 시 신용카드와 동일한 세계 혜택이 있어 경제성을 추구하는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공사는 교통카드 이용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24일부터 각 역사에서 일반·청소년·어린이용 교통카드 3000장을 배포할 예정이다. 교통카드 소진 시 행사는 종료된다.

정몽경 기자 vta@gwangnam.co.kr

전남도, 만성질환위험자 모바일 건강 관리

5월부터 순천·장흥·장성 실시

전남도는 스마트폰으로 맞춤형 건강관리를 제공하는 보건복지부의 ‘모바일 헬스케어’ 시범사업에 순천시, 장흥군, 장성군이 선정됐다고 23일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8월까지 ‘모바일 헬스케어’ 시범사업 대상 기관을 공모해 거처순천시, 장흥군, 장성군을 포함해 전국 35개

소를 선정했다. ‘모바일 헬스케어’사업은 건강검진 결과 결과와 결합·활용이 높기다. 북부비만 만성질환 건강관리사업이 1개 이상 있는 사람(환자 이상)이면 이용할 수 있다.

서비스 이용자는 지역 보건소를 방문해 자신의 건강 상태·생활 습관 개선을 위한 전문가 상담을 받고, 스마트폰과 연동되는 기기(활동량계, 체성분계, 혈당계, 혈당계 등)를 무료로 지급받아 모바일 앱을 통해 일상생활 속에서 할 수 있다.

백정환 기자

3년안에 대박 납니다!

나주, 전원주택단지

- 전남 나주시 다도면 판촌리 191-17번지 한전(KPS) 연수원 건너편
- 임야 1423평, 보전관리지역
- 백운동 25분, 혁신도시 15분
- 남평에서 10분거리
- 전원주택 허가 필, 호수를 품은 최고의 전망
- 나주후 휴양림 / 둘레길 진행중
- 매매 - 평당 80만원 (일시불 조정가)
- 주인직매

H,010-3605-5000

- 전남 나주시 남평읍 우산리 532-32번지 외 6필지 (532-1,2,11,31,33,47번지)
- 전남 노인요양원 바로 옆
- 토지 6256평 / 건물 256평, 계획관리지역
- 백운동 20분, 남평 10분, 강변도시에서 5분거리
- 현재 양어장 운영중
- 인근 전원주택 단지 평당 70만원씩 분양중
- 모든업종 개발 가능
- 매매 - 18억 7600만원 (평당 30만원)
- 주인직매

H,010-3605-5000